



입체적 패키지디자인 상품 과정 관심

제 1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장학금 수상

명 노 경 / 목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3학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더욱 패키지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명노경 군은 패키지디자인이 상품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호기심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밝혔다.

“수상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상을 하고보니 너무 기쁘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라는 명노경 군에게 4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받은 이상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 입학했을 당시만 해도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명노경 군은 “패키지디자인 관련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고, 평면적인 특징을 가진 기존의 디자인 과목들에 비해 입체적인 개성의 패키지디자인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패키지디자인을 처음 접하던 당시와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지금의 생각을 가지기까지를 설명



했다.

한국비주얼대전협회장상, 대한민국화장품우수디자인공모전 포장디자인부문 우수상, 충남산업디자인전 대상 등 포장디자인 분야의 시상제도에

서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한 명노경 군은 국내 패키지디자인의 입지가 아직은 다른 디자

인분야에 비해 협소하지만, 기존 디자이너의 꾸준한 노력과 젊은 디자이너들의 패기가 함께 어우러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발전의 가능성을 낙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명노경 군은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제 1회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기대감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로 미래에 대한 다짐을 대신했다. ☐

윤지은 기자